

癌의 世界

- 發生에서 治療까지 -

臍腸癌

李寅熙
(高太 醫大教授·外科)

原因은 거의 不明

臍臟은 십이지장에 둘러싸여 있으며 소화액과 인슐린을 분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기이다. 그런데, 이같은 장기에 암이 생기는 율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외국의 통계보고이다. 따라서 췌장암은 肉食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더욱 큰 문젯점이 되었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肉食 즉 高蛋白質과 高動物脂肪食을 많이 하게 되면 이들을 소화하기 위해 췌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췌장에 암이 보다 잘 생겨나게 해지는 것은 아닌지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현재 췌장암의 원인에 대해선 위나 자궁·폐암보다도 아주 캄캄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췌장암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췌장암은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서 2배의 발생율을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도 당뇨병이 췌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지 않다.

早期발견에 進一步

그런데, 이같은 췌장암은 증상이 일정치 않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복통, 체중감소와 황달, 그러나 췌장 자체에 암이 생겨 이같은 증세가 나타나기까지엔 상당기간이 흘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암종이 상당히 커지기 전까지 어떤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췌장은 복부 가운데서도 뒷부분에 있는 장기여서, 이곳에 혹이라든가 암이 생겨나도 외부로부터의 촉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췌장암의 조기진단은 무척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단지 쓸개즙이 나오는 出口에 암이 생기면 (파터씨乳頭癌)황달, 발열 동통 등의 증세가 곧 나타나 드물기는 하나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엔 이같은 췌장암도 검사기술이 크게 발달돼 조기발견의 전망이 밝다.

십이지장의 X선造影이라든지, 低緊張性 십이지장 조영이라고 하는 방법이 보다 발전해서, 십이지장의 형태를 아주 뚜렷하게 X선사진을 찍어 낼 수 있는가 하면, 십이지장 내시경이 발달해서 직접 십이지장의 안쪽을 진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췌장암도 조기발견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이다.

췌장암의 치료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 조기수술밖에 없다. 항암제를 정맥주사해서 고쳐보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기발견, 조기수술할 경우 췌장암은 파터씨乳頭부에 생겼을 때 60~70%, 머리부위인 臍頭부에 생겼을 때 10~20%의 5년 생존율을 보인다.

따라서 췌장암은 조기발견 자체부터가 큰 벽에 부딪쳐 있어 치료방법에 있어 다른 어느 癌보다도 앞으로의 큰 연구과제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같은 췌장암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로 시작해서 우리의 의술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일까. 필자의 臨床 경험을 통해 본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예1] 40세 되는 부인이 갑자기 속앓이 같이 명치밑 언저리가 3, 4일 아프더니 사라졌다. 몇달 후 다시 이같은 증세가 도져 병원을 찾아